새로운 ES830 프로토타이핑 모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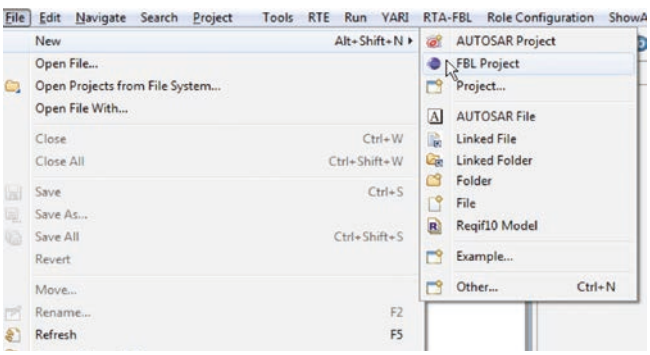
ES800 제품군의 최신제품을 소개합니다. ES830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모듈은 실험실과 차량에서 ECU 및 전자제어 차량시스템의 개발과 검증을 돕는 강력한 실험 플랫폼입니다. ES830 프로토타이핑 모듈을 통해 개발자는 한 개 이상의 시뮬레이션 모델과 함께 다중 ECU, 다중 컨트롤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장점 중 하나는 ECU의 래피드 프로토타이핑과 ECU 측정 및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S830하드웨어는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낮은 지연시간과 지터(jitter)를 제공하며, 하드웨어의 스택 구성은 간단하고 안전하게 시스템을 확장하게 해줍니다. 또한 ES830의 광범위한 인터페이스는 점차 복잡해지는 차량 개발의 요구사항에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Info 이타스 프로토타이핑 솔루션에 더 자세한 내용은 16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플래시-부트로더 RTA-FBL

ISOLAR-B에 통합된 플래시-부트로더 RTA-FBL는 생산에서부터 수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ECU를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타스 AUTOSAR의 서비스 범위를 확장 시켰습니다. 생성된 RTA-FBL의 경우 스타트업 단계를 실행하고, 재프로그래밍 프로토콜을 수행하기 위해 테스터와 통신하고, 마지막으로 ECU에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와 검증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AUTOSAR R4.xcompliant RTA-FBL의 유연한 아키텍처는 여러 종류의 타겟을 지원하며, 자동차 제조업체가 정해놓은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RTA-FBL을 사용하는 고객은 이타스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고객은 훨씬 빠르게 자신의 솔루션을 설계하는 동시에, 자동차 제조업체의 요구사항에 따라 부트로더 소프트웨어 관련부분을 설정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됩니다.



RTA-FBL은 ISOLAR-B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타스의 전략적 협력 활동

산업과 학계의 협력은 기술혁신 시대에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융합연구원)와 이타스코리아는 전략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타스코리아는 DGIST와 자동차 IT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타스코리아는 DGIST의 AUTOSAR 솔루션 도입과 자동차 소프트웨어 및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이타스코리아 김진형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이 이타스코리아와 DGIST의 성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며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DGIST와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는 융•복합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자율주행자동차 핵심요소 기술개발 등과 같은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는 기관입니다.